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평화의 햇불 평창이여, 눈물겨운 한반도여

비탈 앞의 등불' 같았던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어 종반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위기 때문에 유럽 몇몇 국가들은 올림픽 참가를 유보하기도 했다. 좋은 일에는 장애가 많다는 호사다마(好事多魔)인지,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국가로 들으며 남북이 공동 입장하는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평양 올림픽이다'고 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이 평창의 매력을 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 인사와 동선(動線)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평창에 간다'고 말했다.

고난과 시련의 가파른 비탈길, 화해와 치유의 계단을 남북의 선수가 함께 성화를 들고 올라가서 마침내 평화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다. 개최식은 세계인이 경이와 감동의 찬사를 아끼지 않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였다. 스포츠와 예술, 역사와 스토리를 최첨단 기술로 연출한 개최식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선진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계민방에 떨치기에 유감없이 없었다. 개최식을 보고 감

동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다.

9일 개막되어 17일 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92개국 2925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올림픽이다. 9억 5천만 명이 보는 세계인의 겨울축제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개최를 이뤘다. 분단 72년 두 동강 난 땅, 휴전선 철조망이 가까운 평창에서 평화와 화합의 지구촌 축제를 열고 있다.

평창 올림픽은 1988년 하계올림픽 후 30년,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현정화·리분희 여자팀은 단체전 우승, 남자팀은 단체전 4강) 후 27년, 북한 예술단과 조선총련 동포 응원단은 2002년 8·15 민족축전 후 16년, 2007년 하계올림픽 이래 10번째 남북 공동입장은 2007년 동계아시아대륙대회 후 11년 만이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대회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대륙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올림픽 단일팀은 처음이다.

9일 평창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KOREA'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국가로 들으며 공동 입장한 것은 역사적

인 사건이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과 비원(悲願)이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최취 국가체육위원장 등 일행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북한 인사의 청와대 방문은 8년 6개월, 해방 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청와대 방문은 처음이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을 뜻하는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영정 부부장의 청와대 방문은 처음이다.

접견에서 김영정 부부장은 자신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특사임을 밝히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9일 저녁, 강릉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영정 제1부부장이 나란히 앉아서 관람하고 응원했다. 10

일 저녁 서울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도 함께 보고 끝난 후, 환송 인사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정 특사 일행을 개막식과 청와대 방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장 북한 예술단 공연의 국립극장 등 네 번 만났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평택 천안함과 천안함기뢰관을 방문하고 북한 인권탄압과 독재, 가난을 비난했다. 개막 전야 리셉션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15분 늦게 왔다가 5분 만에 퇴장했다.

김영남 위원장만 빼고 다른 나라 정상급 대표들과는 악수하고 나갔다. 개막식 때 주최국인 남북 공동입장이라는 감동적인 역사적 장면에서 모든 국가 대표들이 일어나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나 펜스 부통령과 아베 수상만 박수도 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올림픽 후에 한미연합 훈련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은 주권 문제요 내정 문제'라는 변박을 받았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누가 평화와 통일세력이고, 누가 대결과 전쟁세력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

입박과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단절과 대결의 긴장 조성은 전쟁 위기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보수정권 집권 동안 똑똑히 보아왔지 않나. 있는 그대로의 상호 인정과 존중, 교류와 협력만이 서로 살 길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협력자이지, 우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체는 결코 아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판단, 행동하는 평화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을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하다

국민 2명 중 1명은 질병의 증증 도와는 별개로 본인이 원해 대학병원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시급하다. 의사 대상 조사에서도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해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천12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응답자 중 본인이나 직계가족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한 번 이상 찾은 이용률은 76.6%였다. 대학병원 이용자 중 61.4%는 외래진료뿐 아니라 입원치료도 받았다. 대학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의사의 판단과 본인의 의사가 절반 정도로 유사했다.

1, 2차 병·의원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의뢰로 간 비율이 49.4%, 본인이나 가족이 원해서 간 비율

이 48.8%였다. 특히 전국 의사 148명 대상 조사에서도 '환자가 원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2.6%에 달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했다는 절반 역시 환자의 의사가 크게 반영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대학병원 치료를 원했을 때는 1, 2차 병·의원에서 정밀검사가 불가해서(24.2%), 중증 또는 고난도 질환이 의심되어서(19.4%),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10.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명한 의료진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2.8%가 최신 검사 및 의료 장비를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현재 진료의뢰서를 갖고 외야 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보다는 회송제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海 鹹 河 淡

바다 짠 물 맑을

海 鹹 河 淡

▷ 뜻: 바다 물은 짜고 민물은 맛이 담백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수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약자란 성별, 장애, 종교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차별을 당하며 고통 받는 경제적 빈곤층,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따라서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서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요 치안정책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경

찰도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데이트 폭력 홍보 및 단속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신뢰받는 인권보호 경찰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참여 등 경찰조직 내부 의식 개선에도 노력 중

에 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 스스로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추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된다면 인권 수호기관으로써 공감 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현미 / 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